

2강

액막이로 삼천년을 살게 된 스만의 내력
-스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액막이로 삼천년을 살게 된 스만의 내력

-스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태운 조상

스만이본풀이는 백년해골을 조상으로 모셔 거부(巨富)가 되고 백년해골의 도움으로 정명(定命)을 늘려 삼천년을 살았던 스만의 내력을 담은 본풀이입니다. 제주굿 의례 중 액막이에서 불리는 본풀이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월에 일년의 행운을 비는 멩감제를 벌이는데, 이때에도 액막이를 위하여 불리는 이유로 멩감본풀이라고도 합니다.

스만이본풀이에서 스만이는 우연히 만난 백년해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집안으로 모셔와 위하는데, 여기에는 제주도에 존재하는 ‘태운 조상’이라는 관념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태우다’라는 말의 어의는 “어떤 특별한 복(福)이나 기능 또는 재주를 타고 나다.”입니다.¹⁾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태운 조상’은 ‘특정한 관계로 자신에게 내린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태운 조상’인 백년해골을 집안의 조상으로 모신다는 점에서 스만이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신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조상신본풀이’와 비견할 만 합니다.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다양한 특성과 내력을 통하여 특정 집안의 조상으로 모셔지는 존재에 대한 내력담입니다. 스만이본풀이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 할 수 있지만 조상신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특정 집안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상신본풀이가 아닌 일반신본풀이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스만이본풀이는 자연 신앙의 대상일 수 있는 뼈-해골이 인격화하면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신성시하는 사상은 구석기시대 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죽은 동물의 뼈, 특히 두개골을 동물의 영(soul)과 생명(life)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¹⁾ 해골을 숭배하는 신앙 양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 보편이 계승해온 신앙의 관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연물적 신앙 대상이 ‘현몽(現夢)’을 통해서 인격성을 얻고, 현몽을 통한 발화로 신앙민들에게 자신의 내력과 좌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은 비인격적 조상신의 특성 중 하나인데, 스만이본풀이의 백년 해골 또한 동일한 방식인 현몽을 통한 발화로 스만이 부부에게 방액의 방도를 알려준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만이본풀이

스만이는 세 살에 어머니 죽고 다섯 살에 아버지 죽어 문전걸식(門前乞食)하는 처지이지만 얌전하고 착실하여 동네 어른들이 뜻을 모아 손재주도 좋고 얌전한 부인에게 장가들게 하였습니다. 부인의 샅바느질로 살림을 꾸려가지만 늘 형편은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스만에게 주면서 그것을 석 냥에 팔아 그 돈으로 아이들 먹일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

스만이는 시장에 나가 머리칼을 팔아 생긴 돈 석 냥을 들고 이리 저리 구경을 하다 ‘마세조충’을 파는 사람을 만나고, 그 돈으로 식량은 사지 않고 충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량은 사지 않고 이상한 물건을 사온 스만에게 부인은 대체 무엇이냐고 한탄을 하지만 스만이는 그 충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산 저 산 굴미굴산 깊은 숲을 헤매고 다니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스만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만이는 풀숲에서 난데없는 백년해골을 만나게 되고

1)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30쪽.

자신에게 ‘태운 조상’ 이라 여겨 집으로 모셔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백년해골을 ‘상고팡’ 큰독 안에 모셔놓고 그날부터 기일제사 때나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물을 올리면서 조상으로 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만이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만이가 서른세 살이 되던 해, 수명이 다한 스만이를 잡아가려고 저승에서 삼차사가 내려옵니다. 백년해골은 이를 알고 스만이 부부의 꿈에 나타나 이 액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줍니다.

야, 스만이 부배간(夫婦間)아, 느네덜은 어찌 그렇게 무심(無心)히 즘을 자느냐? 서른셋(三十三) 만기(滿期)가 되는 날 저승 염내왕(閻羅王)에서 널 잡으려 신앙삼체서가 느릴 듯 하다. 어서 바빠 일어남 연주단발신연맹무(剪爪斷髮身嬰白峁)하고 스만이가 날 만나던 삼도전거리예 가서 날날(來日) 밤이랑 쪽지평풍(屏風) 윙둘르곡 비즈낭(樵子木) 즘상을 싱경 몹은 음식 단정히 출려놓곡 상촉권상(香燭勸上)을 지도토와, 너의 일름(名) 삼째(三字)를 써 가지고 제상 알(祭床下)에 부쳐두고 백보 밧젧(百步外)디 업데허영, 조용헌 밤에 어느 누게 불러도 데답(對答)을 말앗당 초편(初番) 이편(二番) 삼편(三番)을 불르건 머릴 들렁 데답하라. 기영하곡 스만이 부인이랑 날이 새건 신의성방(神房)을 청허여당 밧젧딜로 대통기를 비슥고 염넛대(閻邏竿)를 싱거근 저승 염내왕을 청허영 대시왕연맛이를 하웨, 대시왕(大十王) 저승 염내왕(閻羅王) 앞으로 관디(冠帶) 삼베 띠 삼(三)베 휘 삼(三)베 대(大)말치 소(小)말치 주석상동이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하백미(下白米) 동이 ㄱ득 지올려, 황바갈쇄 스만삼필(四萬三匹)을 데령(待令)하곡 천수방액(天授防厄)을 막암시민 알 도레 이시리라.1)

백년해골이 스만이 부부에게 내린 처방은 바로 시왕맞이굿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스만이 부부는 바로 심방을 청하여 시왕맞이굿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만이는 백년해골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 제상을 정성 들여 차려놓고 백 보 밖에 숨어 저승 삼차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자 삼차사가 내려오는데 오던 길의 시장기에 제물이 잔뜩 차려져 있는 제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삼차사는 제물로 급한 시장기를 채우고 나서야 그 상 아래 붙여 놓은 스만의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233쪽.

이름을 발견합니다.

“야, 우리가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인디 이 일을 어찌하민 조으리까?” 1)

난감함에 삼차사는 스만이 이름을 삼세 번 불러보는데 자신들이 잡으려 간 스만이가 틀림없습니다. 스만이 이름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었으니, 공으로 먹을 수 없어 스만을 잡아갈 수 없게 된 삼차사는 이번에는 스만이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집에서는 시왕맞이굿을 하여 방액(防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만을 잡지 못하고 저승으로 돌아간 삼차사는 저승 장적을 다시 보다가 방책을 하나 마련합니다.

일만장 베리(一萬丈硯)에 일천장(一千丈)의 떡을 길고 쪼이 7든 붓 한 즈록을 앗아내여 삼십(三十) 열십제(十字)에 한 그릇을 비껴붓데다.2)

스만의 명부에 있는 정명(定命)인 삼십(三十)의 한자에 한 획을 찍어 삼천(三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삼차사는 스만을 데려오지 않은 일로 문책을 하려는 염라왕 동자판관에게 바뀐 명부를 보여줍니다. 결국 스만이는 방액으로 삼천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인디

백년해골을 만나기 전의 스만리와 스만리부인은 착실하게 살아가지만 늘 가난한 평범한 우리 이웃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백년해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사실 스만리가 부인의 머리칼을 들고 장에 나가 마세조충을 사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승하는 스만리본풀이 이본(異本) 중 마세조충은 스만리에게만 팔 것이라는 내용이 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주친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세계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태운 조상’이라는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5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6쪽.

관념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만이본풀이는 제주굿 의례 중 액막이의 근거로 불리우는 본풀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승 삼차사를 물리치고 정명을 늘리는 방액 내용을 중심으로 구송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년해골은 스만이 부부의 꿈에 나타나 방책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액막이 의례에 대한 자세한 묘사인 것입니다. 정성 들여 올릴 제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제물을 취한 삼차사는 액막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놈(他)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범이니, 이 일을 어찌하민 조으리까?
스만이는 잡을 수 벗어나고, ...1)

이는 저승 삼차사들의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성을 바치는 인간들이 신에게 요청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에 보답을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차사는 결국 스스로의 방책을 내놓게 되고, 아주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방책이 내려집니다. 빠침 획 하나로 삼십세의 정명이 삼천년의 정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 발상의 지혜로움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범’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또한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貪心)’을 돌아보고 적절함과 적당함을 스스로 깨우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스만이본풀이입니다.

[참고문헌]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5쪽.